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가톨릭 성가 9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제 1독서 | 이사야서 35,1-6.10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화답송 |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좌)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우)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 야고보서 5,7-10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1,2-11

오늘의 묵상글 |

Wird Christus tausendmal
만일 그리스도께서 천 번이나

Zu Bethlehem geboren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해도

Und nicht in dir: du bleibst
그분이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noch ewiglich verloren.

당신은 여전히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Fr. Angelus Silesius(1624-1677)

오늘의 복음 - 마태오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12월의 시

- 이해인 수녀님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픽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달아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밋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 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 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 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요한의 의심 - 박완서 정혜 엘리사벳 작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끼리도 세상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는 문명에 대한 낙관론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론이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게 없고 심심할 새도 없을 만큼 온갖 오락거리가 충만해 있는 걸로 부자에게는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문명의 편익을 맛본 우리는 입으로는 옛날을 그리워할 적이 있을지라도 단 일이십 년만 뒤떨어진 문명 속에 데려다놓아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단순 소박하게 살던 시절이 향수처럼 자리하고 있어 언제고 돌아가야 할 고향처럼 평화와 희망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온갖 편리가 보장된 이 발달된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고 힘들고 피곤한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매사를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야채치고 자연에서 나지 않은 게 없건만 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장사꾼조차도 자연산이니 무공해이니 선전을 하면서 팝니다. 백화점에 있는 야채나 과일은 생산지나 생산자의 이름까지 붙여놓고 농약에 덜 오염됐다는 걸 과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그 소리를 믿지 못합니다. 정말 농약을 안 쳤는지 알고 싶으면 생산자의 집에 가서 그 집 식구 가 그걸 먹나 안 먹나 훑쳐보야 한다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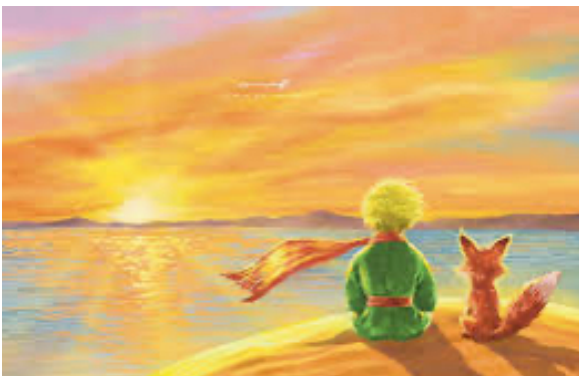
공산품은 함량을 믿지 못하겠고 상표나 가격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생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가짜 세상,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광합니다. 사물을 놓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는 고민은 그래도 약과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입어 역시 태중의 예수를 알아봅니다. 청년 시절에는 광야에서 기도와 고행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부름받을 때를 기다린 수행자였으며,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오직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로 하신 분이 선생님이 맞냐고 묻도록 합니다.

이 의심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하, 요한도 옥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인지 문득 의심을 한 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뜻이 완성됐다는 걸 재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뒤로 캐보지 않고 정면으로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듣고 본 대로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듯이 행동을 보고 사람을 알아보란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번 설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며, 말만 무성하고 행동이 가려진 이 시대에 더욱 빛나는, 등불 같은 말씀입니다.

생똥쥐베리 - 어린왕자 中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고해성사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 서로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고해성사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일미사 전 뿐 아니라 평일에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연락처(이메일, 카톡, 전화)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달력

2026년 달력을 성전 입구에서 나누어드립니다. 이번 달력은 벽걸이(호주 공휴일 포함)와 탁상 달력(한국 공휴일만)으로 2가지 종류를 마련하였습니다. 2가지 중하나를 선택하시어 1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탄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수)

- 6:00pm: 성탄대축일 밤 미사 (영어)

장소: St. Matthew' Church, Page

- 9:00pm: 성탄대축일 밤 미사 (영어)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12월 25일(목)

- 3:00pm 성탄 대축일 미사 (한국어)

4. 새해맞이 성체 조배 및 성시간

- 일시: 12월 31일(수), 11:00pm-12:00am

-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작년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하느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고요히 맞이하고자 합니다.

| 여정 '시즌 6' - 영적 독서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 '기도의 체험' : ~ 163p

-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 192p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2월 14일) 마태오반

다음주 (12월 21일) 요한반

| 봉헌금 & 교무금 | (12월 6일 ~ 12월 12일)

봉헌금 \$ 240

교무금 \$ 570

구민식	권묘순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김건혜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故 권정열 형제님을 위해
- * 故 백종웅 형제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